

시선

사설

30년 바라보는 등책위, 변화하는 환경 반영하자

2017년도 서울캠퍼스 등록금정책위원회(등책위) 활동이 최근 종료됐다. 본디 등록금 책정을 위해 결성된 등책위는 대학의 주요 보직자와 학생대표가 만나는 자리로 학사제도 전반, 교육환경, 복지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올해 등책위 역시 외국인 등록금을 비롯해 SPACE21 사업에 따라 발생할 기존 공간 사용 논의가 진행됐다. 국제캠퍼스 에션 등책위를 통해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과 우정원 사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989년, 사립대학 등록금완전자율화 이후 우리학교는 자체적으로 등책위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교육수요자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등록금에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소통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교외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법적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발표 이후에야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학내의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는 모습의 단편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등책위의 '외국인 등록금 7% 인상 합의'다. 내국인 학생의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이 등록금 상한제에서 유학생을 제외시키며 우리학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7%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당사자가 빠진 논의

내년엔 바뀌어야

이는 등책위 및 등심위를 거치지 않은 고지서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4년에도 인상된 등록금이 고지된 후 등책위와 등심위를 거쳐 동결이 결정되며 차액이 환불된 사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등책위는 7% 인상안을 일단 수용하고 추후 논의를 내년으로 기약했다. 정작 당사자는 참여하지 않은 논의의 결과였다.

우리학교를 찾는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700여 명에서 올해 2,317명이다. 이들이 내는 등록금 또한 적지 않다.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동결 등 정부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은 점차 대학에 가혹해져 가는 가운데 이들은 논의 테이블 밖에 있었다. 2018학년도 총유학생회 '처음처럼' 선본은 1번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분 철회와 반환을 내걸기도 했다. 그들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등책위에 앉을 수 있도록 구성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등책위 구성에 이들을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펴 갈 때다. 등책위가 등록금 뿐 만 아니라 학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테이블로 그 역할이 커진 만큼 다양해진 학내 구성원 변화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7학년도 등책위 활동이 끝난 직후지만 곧 내년도 등책위가 시작된다. 관성적으로 행해지는 등책위가 아닌,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함께 변해가는 등책위의 모습을 기대한다.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열려 촛불과 대학의 미래 성찰

미디어·여론 동향 2017.11.6.-11.1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 7일과 8일, 미래혁신원 '함께하는 사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릴레이 특강'이 열렸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릴레이 특강 열려/대학주보 온라인, 2017.11.8) 후마 소속 교수 11명은 '연애', '유학생' 같은 유쾌하고 유익한 주제로 짙막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실 밖에서 교수와 학생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획된 '함께하는 사제' 캠페인은 지난 가을 대동제 기간 동안 교수와 함께하는 황금마차, 캠퍼스 투어 등으로 꾸러졌다.

의과대학 김도경 교수팀은 광범성 특성을 가진 소재로 몸 속 질병을 관측할 수 있는 생체 영상화 신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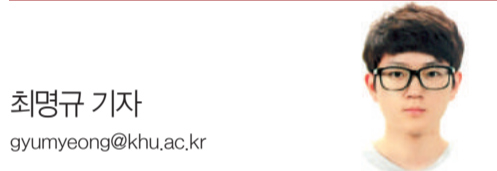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가죽에게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이소진 기자

이 주의 주제 - 비정규직

또 하나의 가족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문화세계의 창조.’ 문화세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계다.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세상이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한다. 이러한 교시를 품고 있는 우리학교는 구성원을 ‘경희가족’이라 부른다. ‘경희가족’이란 말에는 이러한 경희의 가치가 담겨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희가족에 용해되지 못하고 부유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2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중에만 가족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싫어도 떠나야 한다. 과연 이들을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이들은 바로 우리학교 ‘비정규직’ 직원이다. 학교는 이들을 2년을 초과해 고용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없다.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직원은 전체직원의 50%를 넘었다. 그러나 그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2017년 우리학교 비정규직 직원은 463명이다. 전체직원 903명의 51.3%에 달한다. 비정규직 직원은 같은 연수 정규직에 비해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사

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대학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대우와 미래에는 큰 차이가 있다. 2년이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하는 시한부 가족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텐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채용정보사이트에 경희대를 검색해봤다.

계약직과 파견직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줄을 이었다. 국제캠퍼스에서 사무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용인)경희대학교 사무행정 파견직 채용, 근무기간 12개월, (취소) 탬스. 간접고용이다. 이렇게 고용된 파견직 직원은 학교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학교가 아닌 (취소) 탬스다. 학교 사원증을 받고 학교에서 일하고 학교 돈을 받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경희가족이 될 수 없는 신분이다.

취준생 A씨는 12개월이라 명시된 근무기간이 걱정됐는지 게시판을 통해 물었다. “근무기간 12개월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어지는 대답은 간결했다. “평가 후 1년 연장 근무”

A씨가 만약 우리학교에서 일하게 된다면 해도 그의 자리는 고작 2년을 그에게 허용할 뿐이었다. 학교는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후마니타스 정신을 강조한다. 학생에게는 더 나은 인간, 더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가르친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교육철학이다. 하지만 경희가족이라던 비정규직 직원들은 2년마다 ‘계약만료 노동자’, ‘남’으로 내몰렸다. 가족은 고우나 미우나 쉽게 저버릴 수 없지만 학교는 단호하다.

를 개발했다. (“몸 속 질병 영상으로 관측한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11.6) 질병 작용원리 규명과 진단,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생체 영상화 분야에서 김 교수팀은 새로운 생체 영상화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광자현미경에 접목한 연구를 수행했다. 다공성 실리콘 나노입자를 이용한 새로운 생체 영상화 소재를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체내에서 나노입자가 암 부위에 응집하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했다. 이는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생체 영상화 구현 가능성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김 교수는 “특정 질병의 선택적 영상화, 약물전달, 진단 및 치료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소재분야 세계 최고 권위 저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지난 3일 ‘제5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후마니타스는 글 쓰는 사람이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11.14) 글쓰기의 날 행사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매해 개최하는 Peace BAR Festival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촛불과 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백일장에서 참가자들은 촛불과 대학의 미래를 성찰하며 글쓰기의 힘을 확인했다. 대상은 에세이

를 쓴 이재준(간호학 2013) 학생이 수상했다. 백일장에 이은 2부 행사에선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의 특강이 진행됐다. 그는 “대학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출신 케빈 오록 경희대 명예교수가 대산문학상 번역 부문상을 수상했다. (“어부사시사 만족스런 번역에 10년 걸려”/중앙일보 외, 2017.11.8) 조선시대 한시 600수 이상을 영역한 시집 <한국시선집: 조선시대(The Book of Korean Poetry: CHOSON DYNASTY)>로 수상한 오록 교수는 연세대에서 외국인 최초로 한국문학 박사 학위를 딴 뒤, 경희대 등에서 40년간 한국문학을 연구해왔다. 이번 수상에도 “한국의 열과 문학성을 살린 가독성 높은 번역으로 40년간 한국 고전문학 번역에 매진했다”는 평이 붙었다. 어부사시사를 만족스럽게 옮기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오록 교수는 한문에도 능통한 드문 번역자로 꼽힌다. 그는 “한국문학 번역 지원이 노벨상 위주라 생존 문인 작품만 번역되는 것이 문제”라며 “번역보다 사람들이 먼저 문학작품을 읽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은 ‘사전’으로부터

세시봉

박지영 (기획뉴스팀장)



15일 오후,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아파트가 기울고 원룸을 지붕하던 기둥에는 균열이 갔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은 큰 지진으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단연코 수험생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수능을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 사상 최초다. 포항 지역 고사장 일부에 균열이 이는 등 파손 사례가 보고돼 수험생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여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놀란 마음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귀가 제대로 못하는데 미루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결정에 사뭇 비판적이던 정치권도 ‘합당한 처사’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결정은 다양한 함의를 가진다. 한 줄기는 ‘공정함’을 실현한 것이다. 수능이라는 제도는 모두가 한날 한시에 치르는 시험이다. 포항 지역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정함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줄기는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여진에 대한 우려로 포항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사상 초유 수능 연기

안전이 우선

‘안전’에 대한 조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 조치를 하는 것과 문제가 일어난 후 뒤처리하는 것. 후자에 대해 보통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는 다시 키우고 외양간은 고치면 되지만 이미 우리는 세월호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을 안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많은 이들이, 그리고 당사자들이 혼란스럽지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회기동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재를 하며 접한 동대문구청의 입장은 너무나도 안이했다. 소를 잃을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이었다. 세입자들 또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주인이 다 해결한다고 했고, 이행강제금도 다 내고 있어서 괜찮다”며 말이다.

불과 몇 달 전 멕시코시티에는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났다. 324명의 사상자를 낸 사태에서 전문가들은 피해를 더 키운 이유는 ‘인재’라고 분석했다. 무너진 건물 중 최소 3채는 무리한 불법 증축을 한 건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불법 증축이 건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관할구청이 벌금을 내는 걸로 용인해줬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피해가 없다고 넘어가는 이런 방식, 이번 수능 연기가 던지는 함의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옥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0-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기숙)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 Tel 02-961-0030-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21